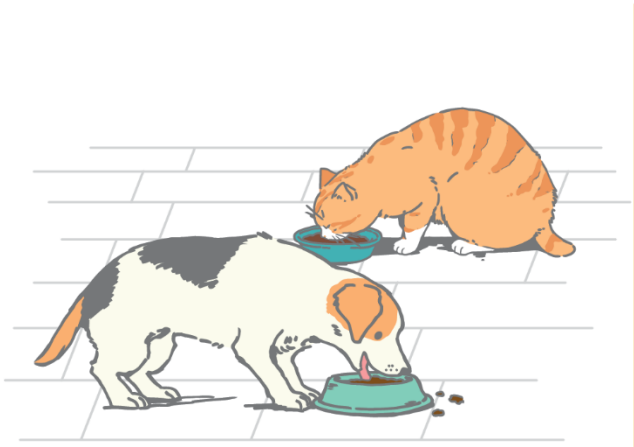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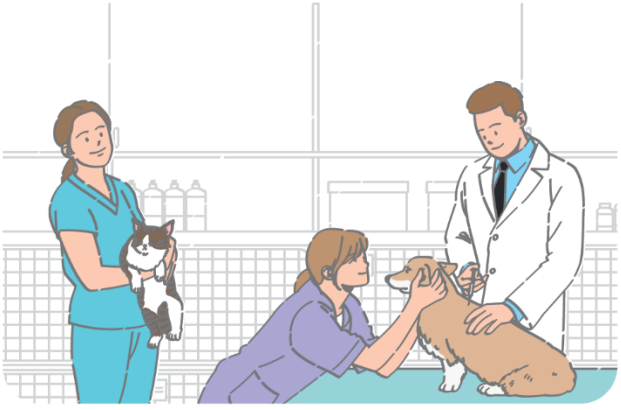
[요약본]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2025. 6

황원경 | 김남경 | 강윤정

KB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2017년 이후 올해 다섯 번째 발간된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가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스페셜 이슈로 반려동물의 비만 관리와 반려인의 펫로스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를 위해 반려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Discussion, FGD)을 실시하여 반려가구의 펫로스와 반려동물 비만 관리 등에 대한 분석의 깊이를 더했다. 본 보고서는 ▲한국 반려동물 현황 ▲반려동물의 생활 웰니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반려동물 생애 자금 관리와 함께 올해 이슈로 ▲반려가구의 펫로스 관리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다루고 있다.

■ 한국 반려동물 현황

2024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2023년 말 대비 6만 가구(1.1%) 증가했으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0.1%p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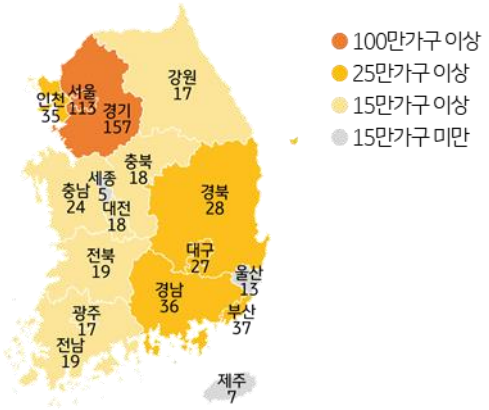
[1.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4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 반려인은 1,546만 명을 기록

한국에서 개,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등과 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는 2024년 말 기준 591만 가구로 2023년 말(585만 가구) 대비 6만 가구(1.1%)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반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이전 조사(26.6%)보다 0.1%p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13만 가구, 경기 157만 가구, 인천 35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절반이 넘는 51.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올해 2024년 말 기준으로 추정한 한국의 반려견 수와 반려묘 수는 동반 증가 추세를 보인 이전 조사와는 달리 반려견 수는 감소하고 반려묘 수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반려견 수는 546만 마리로 2023년 말(556만 마리)보다 10만 마리(1.7%)가 줄었고, 반려묘 수는 217만 마리로 2023년 말(199만 마리)보다 18만 마리(9.2%) 늘었다. 반려묘 수의 경우 2022년 말 대비 2023년 말에 5만 마리, 2021년 말 대비 2022년 말에 15만 마리가 늘며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 반려동물 현황

지역별 반려가구 현황(2024년말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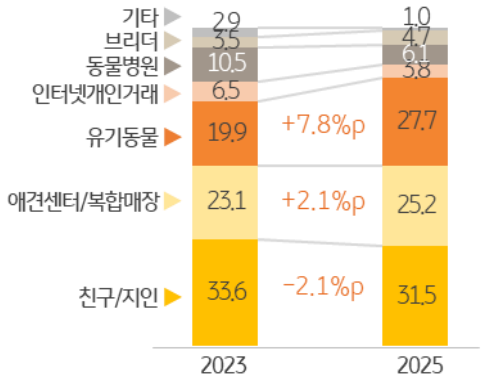
[2. 선호 품종과 입양처] 한국인이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견은 몰티즈, 반려묘는 코리안숏헤어

반려견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견종은 몰티즈(20.4%)였고 뒤이어 푸들(18.9%), 믹스견(15.1%), 포메라니안(12.8%), 비숑프리제(7.0%), 치와와(5.3%), 시추(5.1%) 순이었다. 반려묘의 경우 코리안숏헤어가 44.7%로 가장 많았고 러시안블루(12.8%), 페르시안(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입양 채널은 '친구·지인'(3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카페, 유기동물 직접 구조 등 '유기동물'(27.7%), '애견센터·반려동물 복합매장'(25.2%)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3위를 차지했던 '유기동물'이 이번 조사에서는 7.8%p 증가하며 2위로 올라섰다.

반려견과 반려묘 품종 (Top 7) [단위: %]

반려동물 입양처 [단위: %]



[3. 관련 법·제도 강화 의견 및 펫티켓 성숙도] '동물 유기 및 학대 관련 처벌 강화' 의견에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응답자 약 80%가 동의한 반면 펫티켓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의견 차이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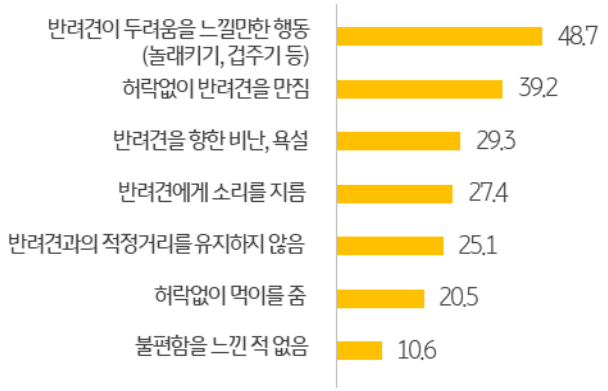
'동물 유기 및 학대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 모두 약 80%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반려동물 양육 시 층간소음 방지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비반려가구(68.0%)의 동의율이 반려가구(59.6%)보다 높았다. 펫티켓 준수에 대해서도 반려가구와 비반려가구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려가구의 71.4%가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응답한 반면 비반려가구는 19.0%만이 '주변에서 펫티켓을 잘 지킨다'고 답했다.

그동안 펫티켓은 주로 반려인이 지켜야 하는 예절로 여겼다면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펫티켓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펫티켓 준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반려견가구가 산책 시 공공 장소에서 느낀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 경험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불편함을 느낀 적 없다'(10.6%)는 응답자를 제외한 반려가구 89.4%가 비반려인의 공공 장소 펫티켓 위반으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비반려인의 펫티켓 위반 경험 1위는 반려견을 '놀라게 하거나 겁주기 등의 행동'(48.7%)이었고, '허락 없이 만지기'(39.2%), '반려견을 향한 비난이나 욕설 퍼붓기'(29.3%) 등의 순이었다.

제도 강화 논의되는 주제('동의한다' 응답률만) [단위: %]

		반려가구	비반려가구
동물 유기 시 처벌 강화	80.8	82.6	80.3
동물 학대 범죄 처벌 강화	79.4	82.6	78.5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과태료 강화	72.7	66.6	74.3
반려견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강화	70.2	63.7	71.8
층간소음 방지노력 필요성	66.3	59.6	68.0
반려동물 미용목적 수술금지	59.0	64.4	57.5
반려견 배상책임보험 가입	54.5	42.6	57.6
내장칩 등록 의무화	53.2	47.9	54.6
반려견 미산책 시 벌금 부과	16.2	19.6	15.3

반려견가구가 느낀 비반려인 펫티켓 위반 경험 [복수응답, 단위: %]



■ 반려동물의 생활 웰니스

반려인들은 적절한 영양과 운동, 꾸준한 건강 검진, 정서적 교감 활동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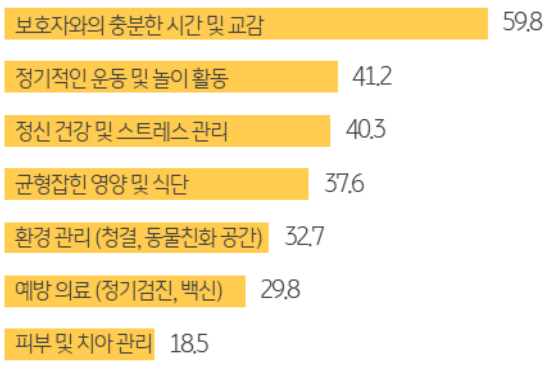
[1. 반려동물 웰니스 인식] 반려인이 꼽는 반려동물 건강과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

반려견·반려묘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신경 쓰는 반려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호자와의 충분한 시간 및 교감'(59.8%)을 꼽았다. 이어 '정기적 운동 및 놀이 활동'(41.2%), '정신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40.3%), '균형잡힌 영양 및 식단'(37.6%), '청결한 생활 공간 및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 관리'(32.7%), '정기 검진 및 백신 접종 등의 예방 의료'(29.8%), '피부·치아 관리'(18.5%) 역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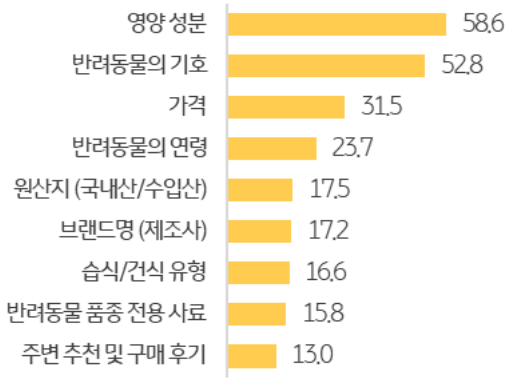
[2. 반려동물의 영양 관리] 반려동물의 사료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영양 성분'과 '반려동물의 기호'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생식이나 사료를 구매할 때 '영양 성분'(58.6%)과 '반려동물의 기호'(52.8%)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외에 '가격'(31.5%), '반려동물의 연령'(23.7%), '원산지(국내산/수입산)'(17.5%), '브랜드명(제조사)'(17.2%), '사료 유형(습식/건식)'(16.6%), '특정 품종 전용 사료'(15.8%), '주변 추천 및 구매 후기'(13.0%)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식이나 사료 구매 시 반려동물 고유의 특성은 물론 성분, 유형, 가격, 구매 후기와 같은 외부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의 건강·행복을 위한 중요 요소 [1+2+3순위, 단위: %]



반려동물 사료 구매 시 고려요인 [1+2+3순위, 단위: %]



[3. 반려동물의 운동과 놀이] 운동·놀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신체 건강 증진을 꾀하는 반려인들의 노력도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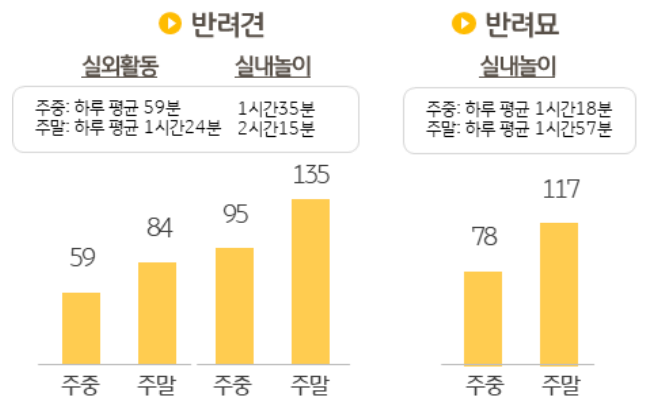
반려견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반려견가구의 59.3%('거의 매일' 41.3%, '주 4~5일' 18.0%)는 주 4일 이상 반려견과 함께 산책, 달리기, 훈련 등 다양한 실외 활동을 하고(하루 평균 주중 59분, 주말 1시간 24분), 실내에서는 이보다 긴 시간을 함께 놀아주고 있었다(하루 평균 주중 1시간 35분, 주말 2시간 15분). 반려묘가구 역시 반려묘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하루 평균 주중 1시간 18분, 주말 1시간 57분을 실내에서 놀아주며 교감하고 있었다.

[4.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 케어] 반려동물 80.1%는 '나홀로 집에',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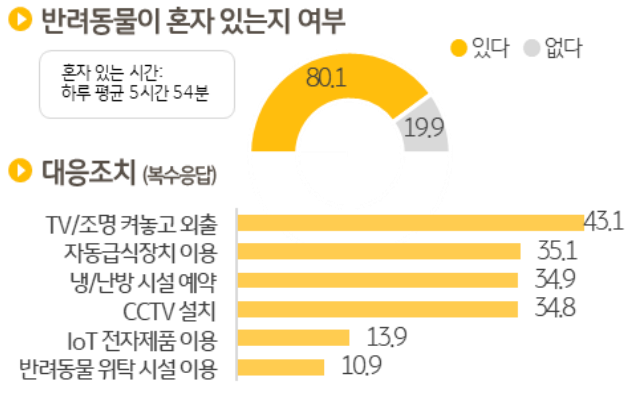
집 안에 홀로 남겨져 시간을 보내는 반려동물의 외로움, 불안감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가구 80.1%는 하루 중 잠시라도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답했으며,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54분이었다.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을 케어하기 위해 반려인이 가장 활발하게 취한 조치는 'TV/조명 켜놓고 외출'(43.1%)이었고, '자동급식(먹이공급)장치 이용하기'(35.1%)과 '냉/난방 시설 (가동) 예약하기'(34.9%), 'CCTV 설치하기'(34.8%)가 유사한 응답률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과의 실외활동·실내놀이 시간 [단위: 분]



'나홀로 집에' 반려동물 케어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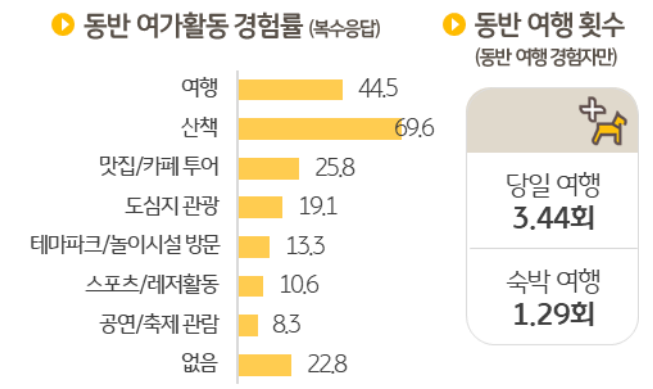
[5.반려동물과의 여가활동]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여가 활동 유형과 빈도 모두 2023년 대비 증가 추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여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며 일상적인 '산책'(69.6%, +5.5%p), '여행'(44.5%, +9.0%p), '맛집·카페 투어'(25.8%, +8.9%p), '도심지 관광'(19.1%, +3.5%p), '테마파크·놀이 시설 방문'(13.3%, +1.9%p) 등 2023년 1월 이후 최근 2년간 반려동물과 함께한 여가 활동 경험률이 지난 조사 대비 모두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의 경우 나들이를 포함한 당일 여행은 3.44회, 1박 이상의 국내 숙박 여행(비행기 이동 포함)은 1.29회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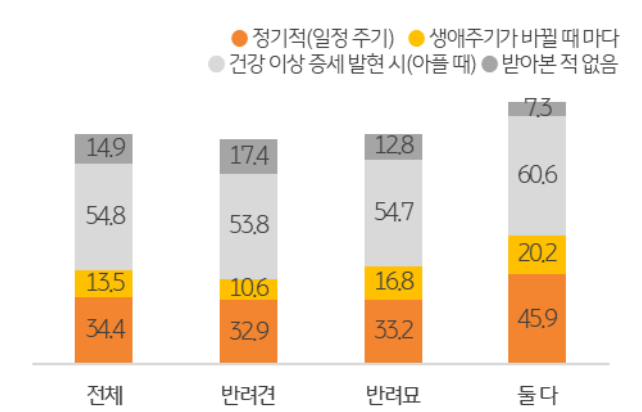
[6.반려동물을 위한 건강검진] 건강검진 노력 역시 활발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가구도 3분의 1 수준

반려견가구, 반려묘가구, 반려견과 반려묘 둘 다 기르는 가구 모두 60% 이상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이 '건강하다'(7점 리커트척도 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했으며, 각 가구의 응답률은 모두 2023년 대비 상승해(반려견 61.8%, +3.6%p, 반려묘 67.3%, +1.9%p, 둘 다 66.6%, +5.5%p) 반려동물이 '건강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예방 의료에도 관심이 많아, 반려가구 54.8%는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아플 때', 34.4%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13.5%는 '(영유아기-청년기-노령기 등) 생애주기가 바뀔 때마다' 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다.

반려동물과의 여가활동 경험 (최근 2년) [단위: %]



건강검진 여부 및 방식 [복수응답, 단위: %]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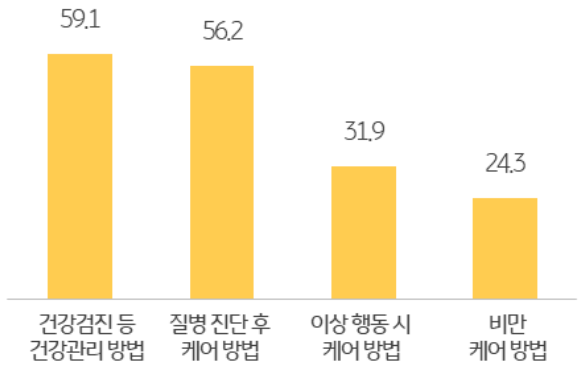
**반려인이 느끼는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양육을 지속할 의향과 타인에게 양육을 추천할 의향 모두 상승했다.**

[1.반려가구의 양육 관심사] 반려가구의 변치 않는 최대 관심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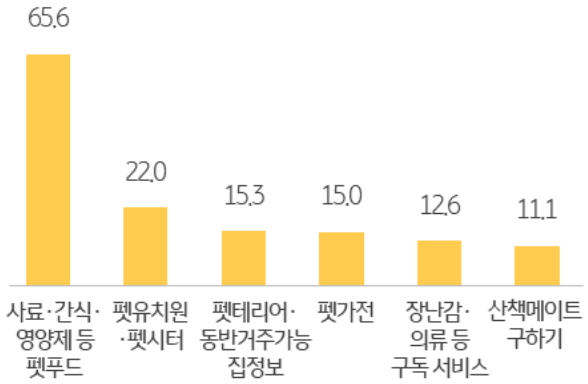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최대 관심사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의 '건강관리'(55.2%)와 반려동물 식사나 놀이 등의 '양육'(45.9%)이었다. '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등의 건강관리 방법'(59.1%)과 '질병 진단 후 케어 방법'(56.2%)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그 외 '이상 행동 시 케어 방법'(31.9%)과 '비만 케어 방법'(24.3%)에 대해서도 고른 관심을 보였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사료·간식·영양제 등 펫푸드'가 반려인의 압도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다(65.6%). 다음으로 '(부재 시 반려동물 보육을 위한) 펫유치원·펫시터'(22.0%), '펫테리어·동반 거주 가능한 집 정보' 등의 거주 환경(15.3%), '펫가전'(15.0%), '장난감·의류 등의 구독 서비스'(12.6%), '산책 메이트 구하기'(11.1%)의 순이었다. 2023년 조사와 비교해 각 항목에 대한 관심도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산책 메이트 구하기'만 4위에서 6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건강관리 관련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



양육 관련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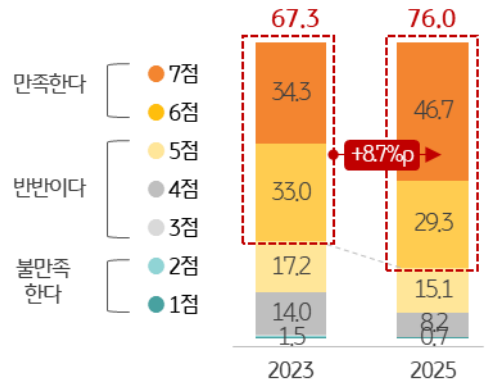


[2.반려가구의 양육 만족도] 반려가구 76%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며, 긍정적 효과로 '행복감 상승'과 '외로움 감소'를 가장 많이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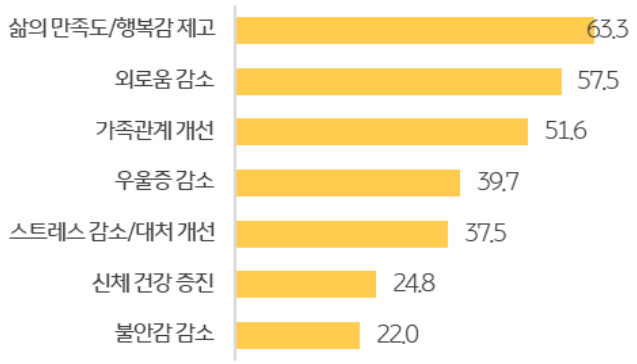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만족한다'(6점과 7점 합계)는 반려인은 76.0%로 2023년(67.3%) 대비 8.7%p 증가했으며, 이 중 '매우 만족한다'(7점)는 응답률이 대폭 상승하며(+12.4%p)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을 견인했다. 가구 유형별로도 살펴본 결과, 1인가구(81.3%), 부모자녀가구(75.0%), 부부가구(73.4%) 순으로 모든 가구 유형에서 2023년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2023년(65.3%) 대비 16.0%p에 달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양육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를 통해 그 이유를 유추해 보았다. 반려인이 꼽은 반려동물 양육이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는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제고'(63.3%)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로움 감소'(57.5%), '가족 관계 개선'(51.6%), '우울증 감소'(39.7%), '스트레스 감소 및 대처 능력 향상'(37.5%), '신체 활동 증가로 인한 건강 증진'(24.8%), '불안감 감소'(22.0%)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 양육 만족도 [단위: %]



반려동물 양육의 긍정적 효과 Top7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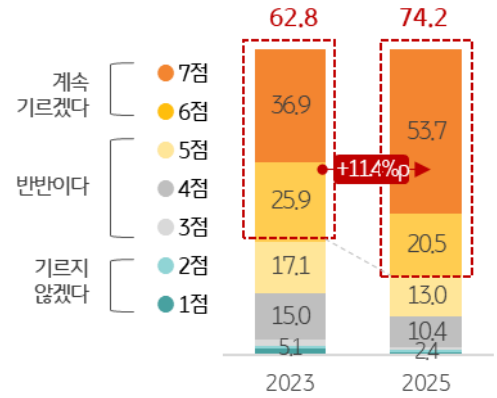
[3.반려가구의 양육 지속 의향] 반려동물 양육 관련 만족도 상승이 양육 지속 의향과 추천 의향 동반 상승을 견인

반려동물을 앞으로 '계속 기르겠다'(6점과 7점 합계)고 응답한 반려가구는 74.2%로 2023년(62.8%)에 비해 11.4%p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1인가구(78.8%), 부모자녀가구(73.7%), 부부가구(69.5%) 순으로 높았고 2023년 대비 1인가구에서 큰 폭(19.1%p)으로 증가해 만족도 상승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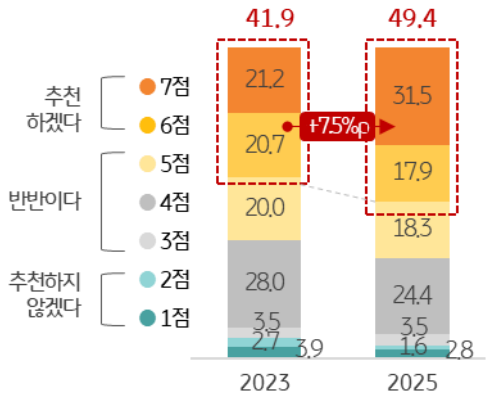
반려가구 76%가 반려동물 양육에 만족하고 74.2%가 양육 지속 의향을 보였으나, 타인에게 반려동물 양육을 '추천하겠다'(6점과 7점 합계)는 응답률은 49.4%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긍정적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양육 추천 의향 역시 2023년(41.9%) 대비 7.5%p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양육 만족도와 지속 의향을 보인 1인가구에서 양육 추천 의향 역시 2023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10.8%p)을 기록했다.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통해 확인된 양육 추천 사유로는 "반려동물이 주는 무한한 사랑이 몸과 마음을 크게 힐링해 준다",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감이 어마어마하다" 등이 있었으며, 비추천 의향 사유로는 "혼자 둘 수 없어 외출이나 가족 여행에 제약이 있다", "병원비 등 비용 부담이 크다", "이 친구가 없을 때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못 견딜 것 같다" 등이 있었다.

반려동물 양육 지속 의향 [단위: %]



반려동물 양육 추천 의향 [단위: %]



■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생애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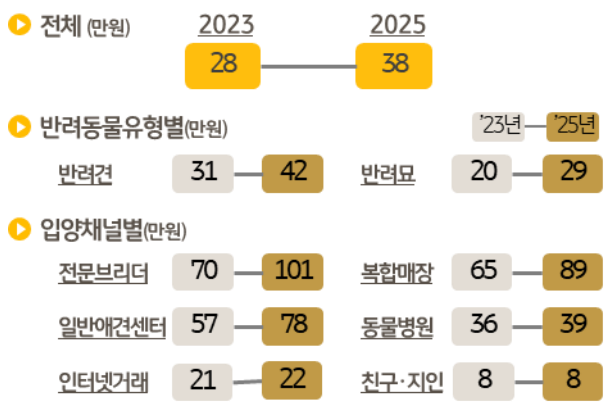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반려가구의 입양부터 사망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

[1. 반려동물 입양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데 든 비용은 평균 38만 원으로 2023년 대비 33.6% 증가

반려가구가 반려동물의 생애 지출의 시작 단계인 입양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평균 38만 원으로 이전 조사(28만 원) 대비 10만 원 증가했다. 반려동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양비로 반려견은 평균 42만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31만 원)보다 11만 원, 반려묘는 평균 29만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보다 9만 원이 늘었다. (입양비는 유기동물이나 유기 장소에서 직접 데려오는 경우는 모수에서 제외하고 산출했다.) 입양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문 브리더'를 통해 데려온 경우 평균 101만 원을 지출해 2023년(70만 원) 대비 31만 원이 늘었고, '반려동물복합매장'은 평균 89만 원으로 2023년(65만 원) 대비 24만 원, '일반애견센터'는 평균 78만 원으로 2023년(57만 원) 대비 21만 원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입양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건강상태'(66.0%)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으며, 이는 이전 조사(58.3%)에 비해 7.7%p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품종'(35.9%), '털 날림'(32.9%)의 순이었고, 이들 항목은 반려묘보다 반려견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서는 '양육비용'을 고려하는 경향이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늘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입양비



반려동물 입양시 고려사항 TOP8 [1+2+3순위,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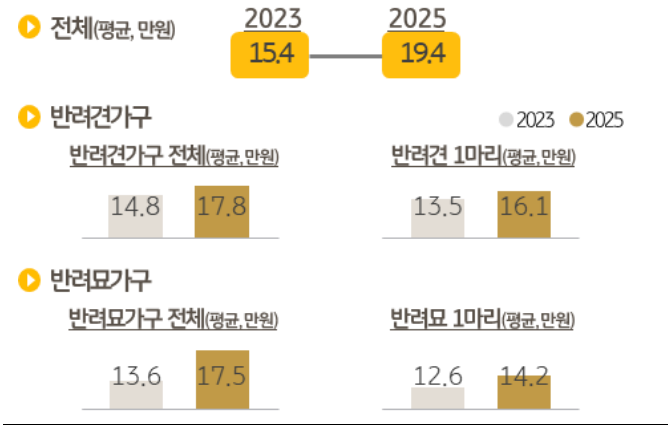
	전체 2023		전체 2025	반려유형별(2025년) 반려견		반려묘
건강상태	58.3	+7.7	66.0	65.9	<	66.1
품종	37.0	-1.1	35.9	43.3	>	25.1
털 날림	30.7	+2.2	32.9	38.8	>	24.3
성별	25.0	-0.5	24.5	27.2	>	20.6
양육비용	22.4	+4.9	27.3	21.1	<	36.4
분양비용	21.1	-1.8	19.3	20.7	>	17.2
평균수명	15.7	+1.6	17.3	14.7	<	21.1
분양처	19.1	-4.1	15.0	15.7	>	14.0
없음	14.9		14.9	9.1	>	15.2

[2. 반려동물 양육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양육비로 월 19만 4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 대비 4만 원이 늘었고, 특히 '사료비'와 '간식비', '건강보조식품비' 등 식비 관련 지출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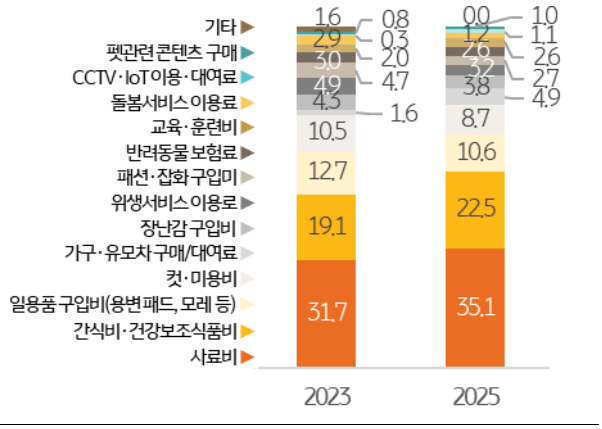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병원비나 건강관리비, 상해 및 질병 치료비를 제외하고 매달 양육비로 '평균 19만 4천 원'을 지출해 2023년(15만 4천 원)에 비해 4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가구의 경우 매달 양육비로 평균 17만 8천 원을 지출해 이전 조사(14만 8천 원)보다 3만 원 증가했고, 개체수별로 환산하면 1마리당 16만 1천 원을 부담했다. 반면 반려묘가구는 월평균 17만 5천 원을 양육비로 지출해 2023년(13만 6천 원)보다 3만 9천 원이 늘어 반려견가구보다 지출액 상승폭이 컸으며, 1마리당 월 양육비는14만 2천 원으로 이전 조사(12만 6천 원) 대비 1만 6천 원이 늘었다.

반려동물의 월평균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35.1%)와 '간식비·건강보조식품비'(22.5%) 등의 식비로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고 이전 조사(50.8%)보다 6.8%p 증가했다. 그 외에 배변 패드나 모래 등 '일용품 구입비'(10.6%), '컷·미용비'(8.7%) 순으로 지출 비중이 컸다. 올해 조사에서는 양육비 지출 항목 중 다섯 번째로 비중이 큰 '가구·유모차 구매/대여료'가 4.9%로 이전 조사(1.6%)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반려동물의 노령화 및 건강이 악화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이나 장거리 이동 및 여행, 혼잡한 공간에서의 이동 등이 늘면서 구매가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월 양육비



반려동물 월 양육비 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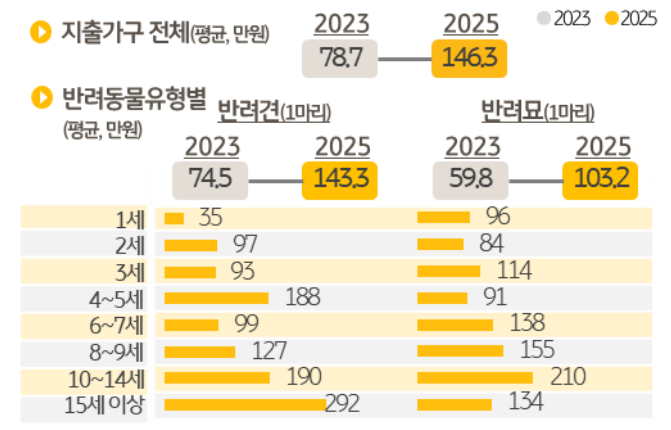
[3.반려동물 치료비] 반려동물 치료비로 전체 반려가구는 평균 102만 7천 원을 지출했고, 치료비 지출 가구는 평균 146만 3천 원으로 2023년(각각 57만 7천 원, 78만 7천 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

반려가구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규모가 큰 생애 지출 중 하나가 반려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으로 지출하는 치료비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 7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57만 7천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이 중 '평균 100만 원 이상'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는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p 증가하며 평균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으며, 치료비를 지출한 70.2%의 반려가구가 지출한 금액은 146만 3천 원으로 2023년(78만 7천 원)보다 2배 가까운 67만 6천 원이 증가했다. 치료비 지출 가구의 지출액을 개체수별로 환산하면, 1마리당 반려견은 68만 8천 원, 반려묘는 43만 4천 원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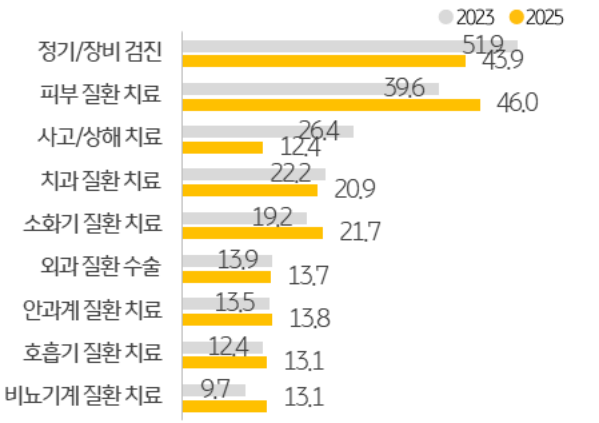
치료비 지출 항목 1순위는 '피부 질환 치료비'로 46.0%를 기록했고, 이전 조사(39.6%)에 비해서도 6.4%p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 외 이전 조사에서 51.9%로 1순위를 차지했던 '정기/장비 검진비'는 올해 43.9%로 8.0%p 감소하며 2순위로 하락했다. 올해 3순위인 '소화기 질환 치료비'(21.7%)도 이전 조사(19.2%)에 비해 지출이 늘어난 항목 중 하나였다.

반려동물 나이대별로는 반려견의 경우 4세 즈음 중장년기에 접어들며 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해 노령기인 7세 이후 증가폭이 커졌고, 반려묘는 반려견보다 그 시기가 1년 정도 빨라 3세 즈음 중장년기에 접어들며 치료비가 증가하기 시작해 노령기인 6세 이후 증가폭이 커졌다.

최근 2년간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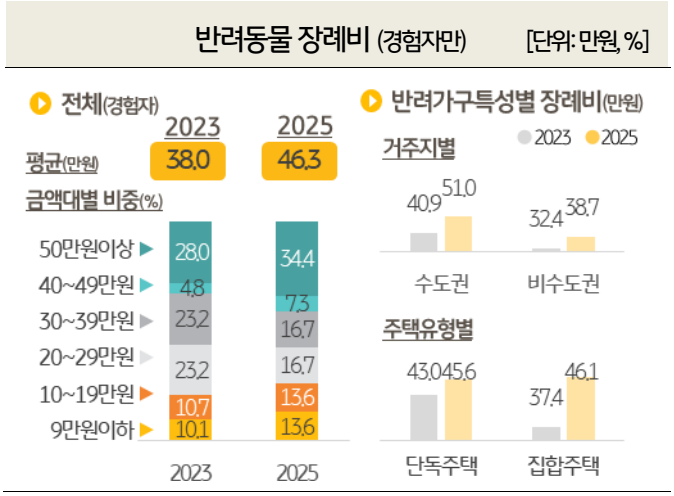
반려동물 치료비 지출 항목 Top9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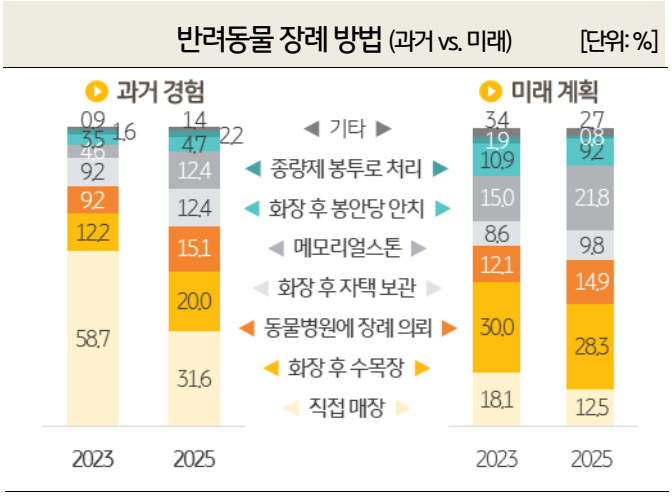


[4.반려동물 장례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장례비로 46만 3천 원을 지출했고, '직접 매장' 방법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2023년 대비 8만 3천 원 증가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관련 생애 지출의 최종 단계인 장례비로 46만 3천 원을 지출하며 2023년(38만 원) 대비 8만 3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례비 지출 규모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 수도권이나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가 비수도권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가구는 46만 1천 원으로 2023년(37만 4천 원)보다 8만 7천이 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례비 증가 이유는 장례 방법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직접 매장'하는 반려가구가 2023년 58.7%에서 올해 31.6%로 27.1%p 감소했다.

향후 반려동물 장례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해 보았는데, '직접 매장'을 생각하는 반려가구는 12.5%에 불과한 반면, 유골을 보석 형태로 만든 '메모리얼스톤'(15.0%→21.8%)이나 '동물병원에 장례를 의뢰'(12.1%→14.9%)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반려가구가 늘어나며 장례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반려동물 생애자금 관리

반려동물 생애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위해 별도 자금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반려가구는 많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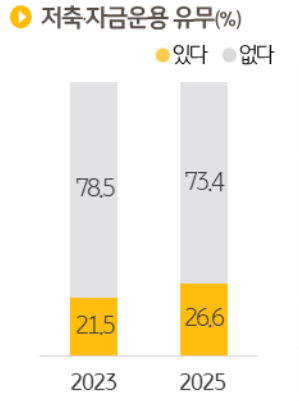
[1. 반려동물 생활비 마련] **반려가구 중 26.6%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유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이고 매달 19만 2천 원을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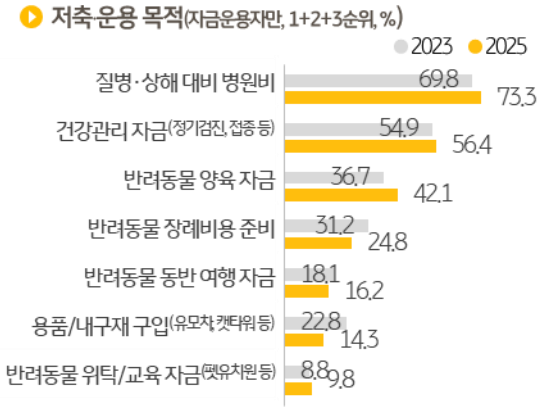
반려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입양비, 양육비, 치료비, 장례비 등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자금을 저축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반려가구의 26.6%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전 조사(21.5%)에 비해 5.1%p 증가했으나 4가구 중 1가구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지출 증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이었다.

반려가구가 전용 자금을 운용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대비 병원비' 마련 목적이 7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관리 자금'(56.4%), '양육 자금'(42.1%)의 순이었으며, 증가폭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 외 '반려동물 장례비용 준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자금', '용품/내구재 구입 자금' 마련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는 지난 조사보다 감소했다.

반려동물 전용 운용 자금은 평균 239만 8천 원으로 이전 조사(242만 7천 원)보다 줄었고, 월 저축액 역시 19만 2천 원으로 2023년(25만 9천 원) 대비 6만 7천 원이 줄었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전용 저축 및 자금 운용 현황 [단위: 만원, %]





운용자금 규모(자금운용자만)

		2023	2025
전체(만원)		242.7	239.8
가구유형별(만원)	1인가구	379.5	277.3
	부부가구	258.1	256.3
	부모자녀가구	228.5	226.4

월저축액(자금운용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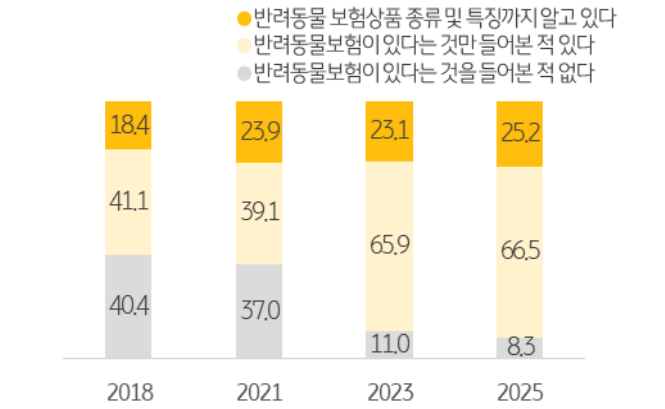
		2023	2025
전체(만원)		25.9	19.2
가구유형별(만원)	1인가구	20.0	20.6
	부부가구	17.0	15.2
	부모자녀가구	29.5	20.1

[2.반려동물보험 인지도] **반려가구의 91.7%가 반려동물보험을 알고 있었으나 가입률은 12.8%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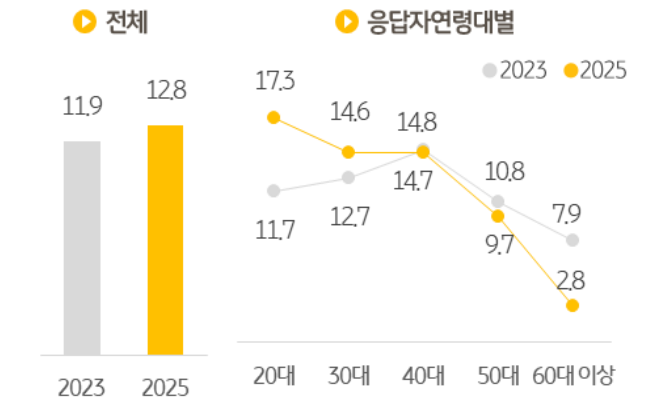
반려가구 91.7%는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또는 종류나 특징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89.0%) 대비 소폭 증가한 데 그치나 2021년 63.0%, 2018년 59.5%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반려가구 중 거의 대부분이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제로 반려동물보험을 가입한 반려가구는 12.8%에 그치며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고, 반려인 연령대별로 가입률 차이가 컸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대가 17.3%로 60대 이상 2.8%와 비교해 2.2배 높았으며, 30대와 40대가 각각 14.6%와 14.7%를 나타냈으나 50대부터 9.7%로 급락했다.

반려동물보험 인지도 [단위: %]



반려동물보험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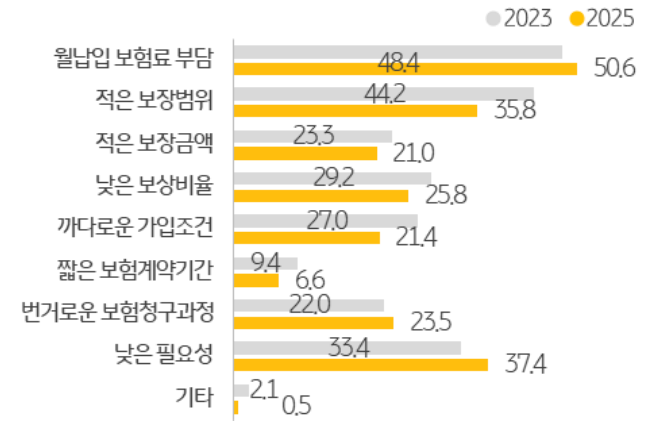


[3.보험가입 걸림돌] **반려가구가 꼽은 반려동물보험 가입의 저해 요인은 '보험료 부담'이었고,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보험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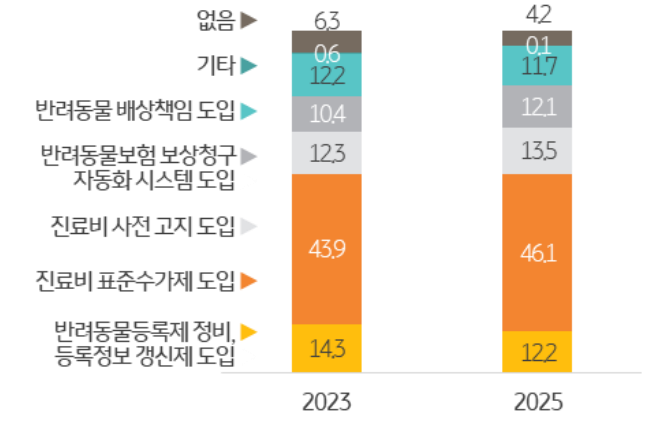
현재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월 납입 보험료 부담'(50.6%),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 등으로 조사됐다. 반려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도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질문해 보았다. 반려가구 46.1%는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이는 적정 보험료 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3.5%),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12.2%),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2.1%) 등의 순이었고, 1위와 응답률 격차가 있었다. 지난 조사 대비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2.2%p)과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2%p),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7%p) 응답률은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2.1%p) 응답률은 감소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의 저해요인 (비가입자만) [1+2+3순위, 단위: %]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 [단위: %]



■ 반려가구의 펫로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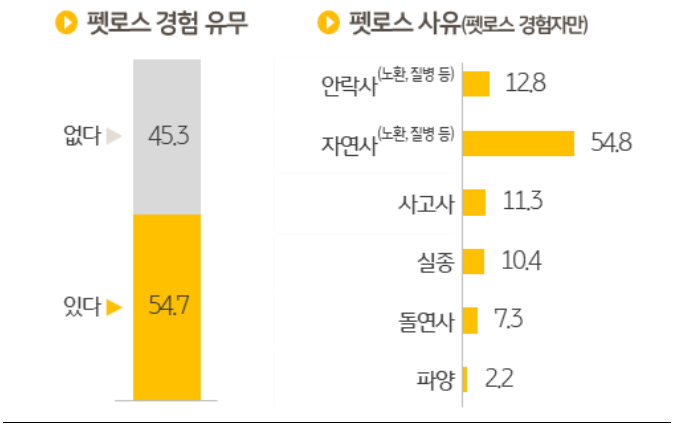
절반 이상의 반려가구가 펫로스를 경험한 가운데,
그 후 찾아든 우울감과 펫로스증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과 주변의 인식 변화를 필요로 했다.

[1. 펫로스 경험] 반려가구 중 절반 정도는 펫로스를 경험했으며,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 지원 미흡을 아쉬워함

'펫로스'란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Pet)'과 상실, 죽음을 의미하는 '로스(Loss)'의 합성어다. 많은 경우 반려동물의 사후 경험하는 상실감·우울감 등의 감정과 동의어로 혼용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지칭한다. 이 같은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는 54.7%로 절반이 넘었다. 펫로스의 사유로는 54.8%가 반려동물의 '자연사(노환이나 질병에 의함)'였고, '안락사(노환, 질병에 의함)'(12.8%),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등의 '사고사'(11.3%), '실종'(10.4%) 등이 1순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GD)을 실시하여 반려인들이 펫로스를 겪으면서 힘들었던 애로 사항을 들어보았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지원이 미흡하고, 특히 비반려인의 펫로스에 대한 공감 수준 차이가 커 반려동물의 죽음을 드러내서 슬퍼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

펫로스 경험 유무 및 사유 [단위: %]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주변 반응(FGD결과)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 그러나 펫로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관련 지원은 미흡

"반려동물을 떠나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동물 안 키워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얘기 안 하게 돼요.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공감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려인-비반려인의 펫로스에 대한 공감 수준차가 크고, 특히 일부 남성에서 동물권 감수성이 다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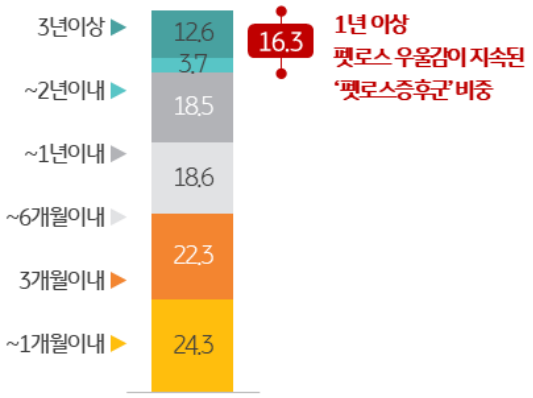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죽으면 한 마리 더 데려와', '아 그래 죽었구나'...이 느낌이라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남자들이라 T인 경우도 많아서 유난이라는 반응이 많아요."
"강아지가 나한테는 가족일 수 있는데...존중해주지 않는 시각이 있어요."

[2.펫로스증후군 경험] 펫로스 경험자 중 우울감이 1년 이상 지속된 '펫로스증후군'을 경험한 반려인도 16.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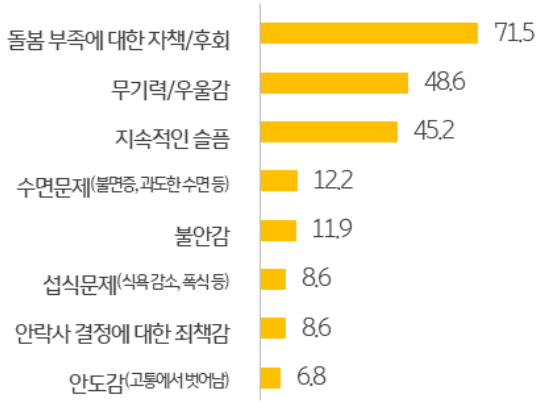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경험한 반려가구(54.7%) 중 16.3%는 이별 극복까지 1년 이상이소요되는 '펫로스증후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펫로스증후군은 반려가구가 펫로스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질문하여 파악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겪는 상실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고통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펫로스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라 일컬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사별 이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불편을 주는 슬픔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속성 애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의 진단 기준을 적용해 펫로스증후군을 정의했다.]

아직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반려가구에게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펫로스 이후 반려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질문해 보았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 중 71.5%가 '돌봄 부족에 대한 자책 및 후회'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력감 및 우울감'(48.6%)과 '지속적인 슬픔'(45.2%)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펫로스 우울감 극복 기간 (최근 펫로스 경험) [단위: %]



펫로스 이후 경험한 증상 [복수응답,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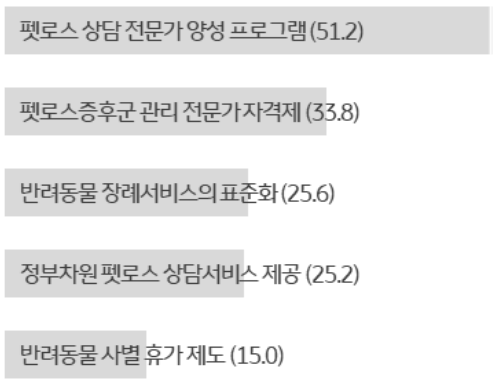
[3. 펫로스 우울감 극복] 펫로스 우울감 극복 방법으로는 '충분한 애도 시간'과 '주변의 공감과 위로'가 가장 효과적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에게 우울감 극복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충분히 아파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애도 기간을 거치는 등 자연스러운 감정 관리'(53.6%)가 도움이 됐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가족·지인의 공감과 위로'(42.4%), '새로운 반려동물 입양'(33.3%), '동일한 경험이 있는 반려인과의 소통 및 교감'(21.6%), '커뮤니티를 통한 경험 사례 공유 및 습득'(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절반 이상의 반려가구가 경험하는 펫로스 이후 찾아드는 우울감을 좀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무엇일지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에게 질문해 보았다. 반려가구의 절반 정도는 펫로스 우울감 극복 지원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제도적 지원으로 '펫로스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51.2%)을 꼽았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가구 3분의 1 정도는 '펫로스증후군 관리 전문가 자격제'(33.8%) 도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펫로스를 경험한 반려인들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상담 등을 통한 펫로스증후군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이들은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의 표준화'(25.6%), '국가보험 등 정부 차원 펫로스 상담 서비스 제공'(25.2%), '반려동물 사별 휴가 제도'(15.0%) 역시 언급했다.

펫로스 우울감 극복 방법 (최근 펫로스 경험) [복수응답, 단위: %]

펫로스 우울감 관련 제도적 지원 [복수응답, 단위:%]



■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반려동물의 건강 웰니스에 대한 관심 증가로 비만 관리에 대한 니즈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려동물 비만 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

[1. 반려동물 비만 진단] 반려동물 체중을 활용한 비만 진단 기준이나 '눈바디' 비만 추정 방법에 대해 반려인의 절반 정도만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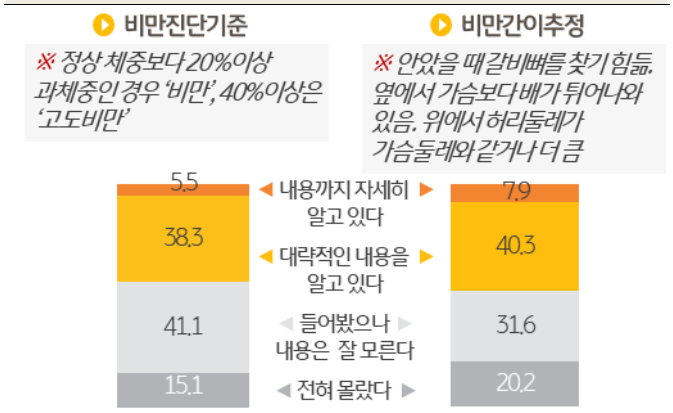
반려동물 비만 관리의 첫걸음은 '비만 진단'이라 할 수 있는데, 반려인들은 그 기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 먼저 체중으로 '비만'과 '고도 비만'을 판정하는 진단 기준에 대해서는 반려가구 중 43.8%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육안으로 비만 정도를 가늠하는 '눈바디' 비만 간이 추정 방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려가구 중 48.2%는 이런 비만 간이 추정 방법을 '대략적으로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으로 보면,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인이 비만 진단 기준과 비만 간이 추정 기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이는 도시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아 반려인의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반려동물 비만율] 수의사 진단을 받은 비만 반려동물 비중은 14.7% , 요크셔테리어, 치와와, 포메라니안은 20% 이상 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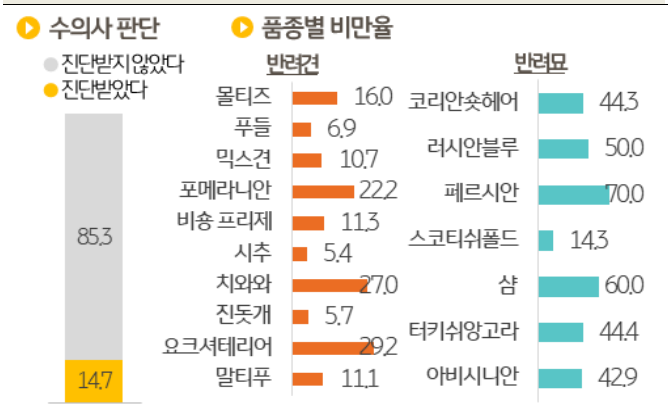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은 14.7%를 차지했다. 거주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9.4%)보다 '집합주택'(15.5%)에 사는 반려동물의 비만 판정률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반려견과 반려묘의 각각 상위 10개 품종에 대해 비만율을 산출해 보았다. 비만율은 품종별로 전체 개체수 중 중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받은 개체수 비중으로 산출했다. 반려견은 '요크셔테리어'(29.2%), '치와와'(27.0%), '포메라니안'(22.2%)의 순으로 20% 이상 높은 비만율을 보였고, '몰티즈'(16.0%), '비숑프리제'(11.3%), '말티푸'(11.1%), '믹스견'(10.7%)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묘는 '페르시안'(70.0%), '샴'(60.0%), '러시안블루'(50.0%) 등의 순으로 '스코티시폴드'(14.3%)를 제외한 나머지 5종은 40% 이상의 높은 비만율을 보였다. 반려묘는 외출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수의사의 비만 판정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66.7%)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묘의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비만 진단 기준 및 추정 방법 인지도 [단위: %]



수의사의 반려동물 비만 판정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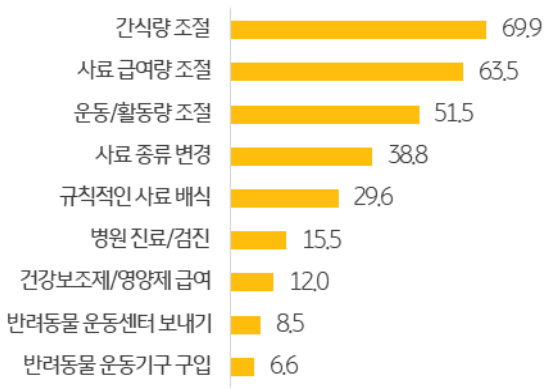


[3.반려동물 비만 대응]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은 비만 관리 방법으로 간식 섭취량·사료 급여량·운동량 조절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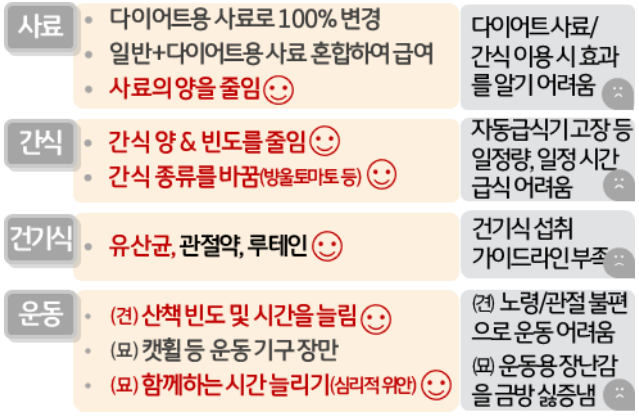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비만 관리를 위해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 '간식 섭취량 조절'(69.9%)과 '사료 급여량 조절'(63.5%), '운동/활동량 조절'(51.5%)의 순으로 절반이 넘었다. 그 외 '사료 종류 변경'(38.8%), '규칙적인 사료 배식'(29.6%), '병원 진료/검진'(15.5%), '건강보조식품/영양제 급여'(12.0%) 등의 '섭식 관리' 방법을 주로 시도했다. 산책이나 달리기·놀이 등 활동량을 늘리거나, 반려동물 피트니스센터를 보내거나, 반려동물 운동 기구를 구입해 '홈트'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섭식 관리'가 주를 이루었다.

수의사로부터 비만 판정을 받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FGD)에서 비만 관리 방법의 효과를 질문한 결과, 다이어트용 사료로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수의 참여자가 비만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나 간식 등의 섭취량을 줄이는 방법을 꼽았다. 산책 빈도나 시간을 늘려 활동량을 늘리는 시도도 많았으나 반려견은 노령이거나 비만으로 관절이 불편하여 활동량을 늘리기 힘들었고, 반려묘는 운동용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내서 비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려동물 비만 관리 방법 [복수응답, 단위: %]



반려동물 비만 관리 효과성 (FGD결과)



(붙임)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조사 방법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반려동물 시장 전체 현황 및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세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20~69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정량조사)와 표적집단심층면접 결과(정성조사, FGD)를 토대로 작성됐다.

■ 정량조사 개요

조사대상	**반려동물 전체 시장 현황 분석용** ▪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반려동물 양육 세부 현황 분석용** ▪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 69세 남녀 ▪ 가구 내 금융의사 결정자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모바일 조사
표본추출방법	▪ 지역/가구주연령/성별/가구구성을 고려한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표본구성	▪ 반려동물 전체 시장 분석 2천 명, 반려가구 양육 현황 분석 1천 명
조사기간	▪ 2025년 2월 12일 ~2025년 2월 26일 (15일간)

■ 정성조사 개요

조사대상	▪ 과거 개/고양이와 이별/사별 경험이 있는 자 혹은 현재 양육중인 개/고양이가 비만 상태이거나 동물병원에서 비만 진단을 받은 경우 - 가구 자산관리 의사결정 관여자, 반려동물 양육 의사결정자
조사방법	▪ 표적집단심층면접(FGD, Focused Group Discussion)
표본추출방법	▪ 판단표본추출(Judgement Sampling) - 사전 전화면접/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적합성 확인 후 선정
표본구성	▪ 6그룹, 총 45명
조사기간	▪ 2025년 3월 5일 ~ 2025년 3월 13일

No.	특성		샘플(명)
그룹 1	이별(사별) 경험	만 45~59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8
그룹 2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7
그룹 3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묘 양육자	8
그룹 4	비만 진단	만 45~59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6
그룹 5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견 양육자	8
그룹 6		만 30~44세 미/기혼 남녀 & 현 반려묘 양육자	8